

 국립전주박물관 Jeonju National Museum		보 도 자 료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	
배포일시	2016. 2. 5.(금)		담당부서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학예연구관	신상호(063-220-1021)		학예연구사	장제근(063-220-1030)	

“국립전주박물관 상설전시실 새단장 대국민 공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은 2012년부터 4년에 걸친 준비 끝에 지난해 12월 상설전시실 개편을 완료하고, 최종적인 시범운영을 거쳐 새롭게 단장한 고고실을 2월 6일부터 관람객에게 전면 공개한다. 1990년 국립전주박물관이 개관 된 이후 2012년 기획전시실, 2013년 역사실, 2014년 미술실과 어린이박물관, 2015년 고고실을 마지막으로 개편함으로서, 25년 만에 모든 전시실을 새단장하여 국내 유수의 박물관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최고의 전시품과 전시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이번 고고실의 전시유물 또한 최근 혁신도시 완주 신평유적에서 출토된 국보급 잔무늬청동거울(細紋鏡)과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을 비롯하여 기존 전시된 유물의 80% 이상을 대폭 교체하였다. 그리고 벽면전시 등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최신 전시기법을 사용하여 유물 수량 또한 기존의 것에 2배가 넘는 2,000여 점을 전시하게 되었다.

각 전시실별 전시 개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고실의 전시 키워드는 전북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고, 다시 외부의 세력에 대응하여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이루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북 선사문화의 시작’, ‘고대국가로의 도약’, ‘마한에서 백제로’, ‘고대국가의 완충지 전북’, ‘백제의 부흥 그리고 후백제’ 등 다섯 개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먼저 ‘전북 선사문화의 시작’은 최근 임실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구석기유적이 분포된 섬진강 일대 구석기와 내륙의 구석기를 쓰임새별로 알기 쉽게 전시하였다. 빗살무늬토기로 대표되는 신석기시대 유물 또한 새롭게 선보인다.

또한 이번 전시개편에서는 국내 최대의 청동기 출토지인 완주 혁신도시 출토품을 비롯하여 전북에서 출토된 청동기 유적 25개소 중 완주 갈동, 신흥유적 등 10개 유적을 부각하였다. 그동안 금강 일대로 비정되었던 고조선 준왕(準王)의 남천지를 새롭게 검토해 볼 중요한 자료로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기대된다.

완형의 거울을 비롯하여 일부러 깨뜨려 넣은 청동기에서 당시의 관념과 고도화된 기술력 그리고 고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힘이 전북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전북의 백제는, 백제 병합 이전과 이후의 유적을 비교 전시하였다. 특히 고창 봉덕리 분구묘(墳丘墓)에서 출토된 금동신발, 유공장식호, 중국제 청자사이호, 장식대도, 동제탁잔 등은 2009년 발굴 이후 처음으로 이번 전시에 공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북의 동북지역 가야유물 신자료도 공개하는데 삼국시대에 대가야와 소가야뿐만 아니라 백제와 가야가 융합하는 역동적인 전북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죽막동 고대해양 제사유적도 빠질 수 없는데 이전 복합전시에서 새롭게 전시기법을 바꾸어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제사의 양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단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꾸몄다.

마지막으로 역사상 전주가 한나라의 수도였던 후백제의 역사도 조명하였다. 후삼국 중 37년간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견훤과 후백제의 물질문화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공개한다.

미술실은 기존 서화품을 격납하고 공예품 중심으로 새롭게 전시하였다. 전북의 미술공예품을 중심으로 특화하되, 참고 자료도 함께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전시는 크게 부처를 위한 공덕, 하늘과 바다를 품은 그릇, 나무와 종이의 향기의 3주제로 선보이고 있다. 부처를 위한 공덕에서는 사리장엄구, 불상, 의식구, 범음구로 구성하여 전북의 불교미술을 소개하고 있으며, 하늘과 바다를 품은 그릇에서는 초기청자, 부안청자, 분청사기로 구성하여 특색있는 전북의 도자공예를 소개한다. 나무와 종이의 향기에서는 목칠과 한지공예품, 부채를 전시하여 전주의 특화된 공예품을 강조하였다.

역사실은 전주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졌다. 전주는 조선 왕실의 본향이자 전라도 감영소재지였다는 점에서 유구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풍요로운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공예와 출판문화가 발달한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다.

역사실에서는 조선 왕실과 관련된 유물, 각종 목공예품, 고서적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장대한 크기(10폭 병풍)의 <완산부지도> (보물 제1876호)를 통해 전주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도 흥미를 더해주고 있다.

석전기념실은 석전의 친필 서예와 가전 혹은 수집한 옛 책, 서예, 편지 등 15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진열장 내부를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벽체 도색, 바닥 교체 등을 통해 안정감 있고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석전 서예를 비롯하여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신위와 이삼만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린이박물관은 기존 박물관 내 전라북도 역사와 문화 체험공간 체험학습실을 어린이 발달 특성에 맞는 체험공간과 주제를 고려하여 2014년 12월부터 시범운영하였다.

조선 왕실 문화를 주제로 한 왕세자의 길, 나는 조선의 왕이로소이다, 왕실의 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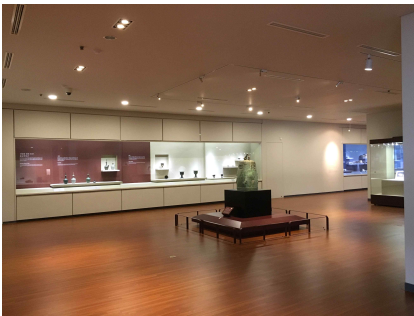
과 맛, 조선왕실과 전주 등 모두 4가지 주제 체험영역, 총 60여 가지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4,5세부터 9,10세 어린이와 동반한 보호자가 주요 이용대상이며, 이용 방법은 개인 관람객은 자유 관람이나 10인 이상 단체 관람객은 반드시 누리집을 통한 사전예약을 해야만 입장 가능하다.

특히 전시된 유물 중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가치가 있는 지정문화재급의 중요 유물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상반기에 박물관 시설 전반의 개보수를 마무리하여 전북지역 대표 박물관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박물관교육과 지역민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번 설 연휴를 맞이하여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국립전주박물관을 찾아 전통놀이도 즐기고 새롭게 문을 연 전시실을 관람하면서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길 기대한다.



고고실 전경



미술실 전경



역사실 전경



석전기념실 전경



어린이박물관 전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장제근(☎ 063-220-10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